

#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 疔腫癰疽篇의 差異點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sup>1</sup>  
김용진<sup>1\*</sup>

## The Differences of furunculus section between *Sonjinchungeumbang*(『孫真人千金方』) and *Bigeupchungeumyobang*(『備急千金要方』)

Kim Yong-jin<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I will study ab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urunculus section between *Sonjinchungeumbang* and *Bigeupchungeumyobang*.

**Method** : I compare furunculus section of *Sonjinchungeumbang* with *Bigeupchungeumyobang* to investigate changes of texts.

**Result** : I can find significant differences of furunculus section between *Sonjinchungeumbang* and *Bigeupchungeumyobang*, specially the 3rd prescription of Balbae(發背方第三), the 6th prescription of Pyojeo(癰疽方第六).

**Conclusion** : *Sonjinchungeumbang* is a prescription book which is compiled in Dang dynasty. And *Bigeupchungeumyobang* is a revised version of *Sonjinchungeumbang* which is compiled by the Bureau for Revising Medical Texts(校正醫書局) in Song dynasty. *Bigeupchungeumyobang* shows the added medical knowledge about furunculus in Song dynasty.

**Key words** : *Sonjinchungeumbang*(『孫真人千金方』), *Bigeupchungeumyobang*(『備急千金要方』), furunculus

## 1. 序 論

\* 교신저자 : 김용진.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E-mail : king@dju.kr Tel : 042-280-2626  
접수일(2012년 5월 14일), 수정일(1차 : 2012년 5월 18일, 2차 : 2012년 8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17일)

癰疽는 急性化膿性炎症으로 그 原因인 化膿菌으로 金黄色 葡萄狀球菌이고 體表癰腫 急性化膿性淋 巴腺炎 蜂窩組織炎 등을 포함하여 말하고 있다.

『靈樞·癰疽』에서 “夫血脈營衛 周流不休하니 上應 星宿하고 下應經數라 寒邪客於經絡之中하면 則血泣하고 血泣則不通하고 不通則衛氣歸之하니 不得復反 故癰腫이라 寒氣化爲熱하니 熱勝則腐肉하고 肉腐則爲膿하고 膿不

瀉則爛筋하고 筋爛則傷骨하고 骨傷則髓消하야 不當骨空하고 不得泄瀉오 血枯空虛하면 則筋骨肌肉不相榮하고 經脈敗漏하야 薰於五藏하야 藏傷故死矣니이다.”<sup>1)</sup>라고 하여 寒邪가 經絡에 侵入하여 榮衛가 不通하여 癰腫이 되고 이것이 進行되어 高름이 생기고 筋骨髓를 손상시켜 五臟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隋唐五代時期에 이르러 國家의 醫學管理體制인 太醫署아래에 外傷科의 아래에 骨傷科를 두었고, 醫系아래에 瘡腫科를 두어 化膿性感染을 重點의으로 治療하게 하였다<sup>2)</sup>.

본 研究는 先行 研究인 『孫眞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差異點에 대한 考察의 一環으로 癰疽와 關聯된 文章의 差異點을 變更되거나 削除 또는 追加된 部分을 中心으로 比較·考察하도록 하겠다.

## 2.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 丁腫癰疽의 比較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 「丁腫癰疽」는 『孫眞人千金方』에서는 二十三卷에 位置하고 있다. 『孫眞人千金方』에서 卷二十二는 「食治方」으로 『備急千金要方』의 卷二十六에 해당한다. 이는 『孫眞人千金方』을 校訂하면서 「食治方」을 뒤로 옮겨서 「雜病」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記錄한 것이라고 하겠다.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 「丁腫癰疽」의 세부 目次는 丁腫 癰疽 發背 丹毒 癰疹 瘰癧로 『孫眞人千金方』과 같게 構成되었다.

### 1) 「丁腫方第一」의 比較<sup>3)4)</sup>

『備急千金要方』에는 篇名의 뒤에 論一首 證十五

首 方二十九首 灸法一首라고 註釋을 달았다.

Table 1. 「丁腫方第一」의 比較

[孫眞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三首	論	一首
證	十三瘡 說明	證	十五首
處方	二十六首	方	二十九首
기타		기타	灸法一首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稽康曰과 二首의 論曰이 있어 論은 三首이고 證은 十三瘡에 대한 說明이 되어 있고, 處方은 二十六首를 收錄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첫머리의 “稽康曰稔歲多病, 飢年少疾. 信哉不虛. 是以關中土地, 俗好儉畜, 厨膳蔬餼, 不過薤醬而已, 其人少病而壽; 江南嶺表, 其處豐饒, 海陸鮭肴, 無所不備, 土俗多疾而早夭. 北方士子遊宦至彼, 遇其豐贍, 以爲福祐所臻, 是以尊卑長幼, 咨口食啖, 夜長醉飽, 四體熱悶, 赤露眠臥, 宿食不消, 未踰期月, 大小皆病, 或患霍亂脚氣脹滿, 或寒或熱, 癰癩惡核丁腫, 或癰疽痔漏, 或偏風腿腫, 不知醫療, 以至於死, 凡如此者, 比肩皆是. 爾雅云: 不集水土, 都不知病之所由, 盡言思之, 可爲患者也. 患者先須識此, 以自誠慎. 故此一卷存於攝養, 預防不逮耳.”을 削除하고 대신 “論曰: 夫稟形之類, 須存攝養, 將息失度, 百病萌生. 故四時代謝, 陰陽遞與. 此之二氣, 更相擊怒, 當是時也, 必有暴氣. 夫暴氣者, 每月之中必有, 卒然大風大霧, 大寒大熱, 若不時避, 人忽遇之, 此皆入人四體, 頓折皮膚, 流注經脈, 遂使腠理壅隔, 營衛結滯, 陰陽之氣不得宣瀉, 變成癰疽丁毒, 惡瘡諸腫. 至於丁腫, 若不預識, 令人死不逮辰. 若著訖乃欲求方, 其人已入木矣. 所以養生之士, 須早識此方, 凡是瘡瘍無所逃矣. 凡療丁腫, 皆刺中心至痛. 又刺四邊十餘下, 令血出, 去血傳藥, 藥氣得入針孔中. 若不達瘡內, 療不得力. 又其腫好著口中頰邊舌上, 見赤黑如珠子, 疼痛應心是也. 是秋冬寒毒久結皮中, 變作此疾, 不即療之, 日夜根長, 流入諸脈數道, 如箭入身捉人不得動搖. 若不慎口味房室, 死不旋踵. 經五六日不瘥, 眼中見火, 心神昏口乾心煩, 即死也.”이라는 文章을 추가하면서 『孫眞人千金方』에서의 論曰을 證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밑줄친 부분은 『備急千

1) 전국한의과대학원전학교실편찬위원회. 改訂版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6. p.561.  
2)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248.  
3)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45~349.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389~392.

金要方』에 새롭게 추가한 部分이고, 뒷부분은 『孫真人千金方』의 文章에 추가(굵은 글자)하거나 변경(굵게 기울인 글자)시킨 部分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시킨 部分은 丁腫의 原因과 豫後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 不足한 部分을 補充하였고, 뒷 部分은 몇 군데만 고쳐 『孫真人千金方』의 文章을 그대로 따랐다.

十三瘡에 대하여 『備急千金要方』에서 “一曰麻子疔, 其狀肉上起頭, 大如黍米, 色稍黑, 四邊微赤多癢, 忌食麻子及衣麻布并入麻田中行. 二曰石疔, 其狀皮肉相連, 色烏黑如黑豆, 甚硬, 刺之不入, 肉內隱隱微疼, 忌瓦礫磚石之屬. 三曰雄疔, 其狀頭黑(藥), 四畔仰, 瘡胞漿起, 有水出色黃, 大如錢孔. 忌房事. 四曰雌疔, 其狀瘡頭稍黃, 向裡(藥), 亦如灸瘡, 四畔胞漿起, 心凹色赤, 大如錢孔, 忌房事. 五曰火疔, 其狀如湯火燒灼, 瘡頭黑(藥), 四邊有胞漿起, 又如赤粟米, 忌火炙(及火烙). 六曰爛疔, 其狀色稍黑有白斑, 瘡中潰潰則有膿水流出, 瘡形大小如匙面, 忌沸熱食爛臭物. 七曰三十六疔, 其狀頭黑浮起, 形如黑豆, 四畔起大赤色, 今日生一, 明日生二, 至三日生三乃至十. 若滿三十六, 藥所不能治, 如未(不)滿三十六者可治, 俗名黑胞. 忌嗔怒蓄積(等). 八曰蛇眼疔, 其狀瘡頭黑皮上浮, 生形如小豆, 狀似蛇眼, 大體硬, 忌惡眼看之(嗔怒惡眼人見之), 並(及)嫉妒人見及毒藥. 九曰鹽膚疔, 其狀大如匙面, 四畔(徧瘡)皆赤, 有黑粟粒起, 忌鹹食. 十曰水洗疔, 其狀大如錢形, 或如錢孔大, 瘡頭白裡黑(藥), 汁出中硬, 忌飲漿水水洗渡河. 十一曰刀鎌疔, 其狀瘡闊狹如薤葉大, 長一寸, 左側肉黑如燒燬, 忌刺及鎌刀切割鐵刀所傷, 可以藥治. 十二曰浮瀉疔, 其狀瘡體(瘡狀)曲圓少許不合, 長而狹如薤葉大, 內黃外黑, 黑(曲)處刺不痛, 內黃處刺之則痛. 十三曰牛拘疔, 其狀肉胞起(色), 掐不破.”이라고 하였는데 굵은 글자는 『備急千金要方』에서 추가한 部分이고, 굵게 기울인 글자는 수정한 部分이고 괄호안은 『孫真人千金方』의 原文이다. 이 部分에서도 수정하거나 추가한 部分이 原文의 內容에 커다란 影響을 주지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處方에 있어서는 『孫真人千金方』에서의 “凡丁腫

單方的 又方인 搗馬齒莧二分 石灰三分 鷄子白和傅之”를 “治丁腫病, 忌見麻勃, 見之即死者方的 又方인 鍛石三分 馬齒菜二分 上二味搗, 以雞子白和傅”로 고쳤고, 『孫真人千金方』에서의 “論曰 아래 又方인 麩和攪豬脂, 封上, 立愈”를 治一切丁腫方的 又方인 臘月豬脂以麩和, 封上瘡의 內容을 약간 달리하였다.

그리고 治丁腫病, 忌見麻勃, 見之即死者方的 又方인 小豆花爲末, 傅之瘡와 犯丁瘡方的 又方인 以麩圍瘡如前法, 以針亂刺瘡, 銅器煮醋令沸, 瀉著麩圍中令容一盞, 冷則易之, 三度即拔根出과 다른 又方인 燒蛇蛻皮灰, 以雞子清和塗瘡를 추가하여 모두 三首의 處方을 추가하였다.

## 2) 「癰癩方第二」의 比較<sup>5)6)</sup>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癰癩第二」로 題目이 약간 다르며 內容으로 脈七條 論一首 方八十七首 禁法二首 灸法三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處方은 九十一首로 되어 있고 灸法은 一首만 記錄되어 있다.

Table 2. 「癰癩方第二」의 比較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一首	論	一首	
證	脈一條	證	脈七條	
處方	六十七首	方	八十七首	九十一首
기타		기타	禁法二首 灸法三首	灸法 一首

脈과 관련된 文章을 比較하면 아래와 같다.

『孫真人千金方』의 原文을 修正하여 “脈數, 身無熱, 即內有癰. 諸浮數脈, 當發熱, 而皮(反)洗洗惡寒, 若有痛處, 當結(爲)其癰. 脈微而遲, 必發熱, 脈弱而數, 此爲振寒, 而發癰腫. 脈浮而數, 身無熱, 其形嘿嘿, 胃中微燥, 不知痛處, 其人當發癰(腫). 脈滑而數, 滑則爲實, 數則爲熱, 滑即爲榮, 數即爲多(衛), 榮衛

5)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 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50~360.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392~401.

相逢, 即結爲癰腫. 熱之所過, 即爲癰膿, 身體有腫(瘡處), 或苦處有瘡.(時時苦有瘡)”라고 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의 誤謬를 바로 잡은 部分이 있다. 아울러 “問曰, 寸口脈微而澀, 法當亡血若汗出, 設不汗者當云何, 答曰, 若身有瘡, 被刀器所傷. 亡血故也와 跌陽脈滑而數, 法當下重少陰, 脈滑而數, 婦人陰中生瘡”을 追加하여 『孫真人千金方』의 內容을 補充하여 脈에 대한 論述을 모두 七條로 구성하였다.

論에서는 『孫真人千金方』의 順序를 바꾸었으며, “凡用藥帖, 法皆當瘡頭處, 其藥開孔, 令泄熱氣, 亦當頭以太(火)針, 針入四分即差”에서처럼 大針을 火針으로 바꾸어 좀 더 治療가 잘 되는 治法으로 고쳤다. 이처럼 약간의 文章을 새롭게 고친 部分은 많이 나타난다.

『孫真人千金方』에서 削除한 文章은 論의 마지막 部分으로 “凡右件氣痛, 先服五香湯, 傅丹參膏數劑後, 及次服小竹浸湯, 中間逐空服白薇散, 以次第療之. 又有氣腫痛, 其狀如癰, 無頭, 虛腫, 色不變, 但皮急痛不得手近, 亦須服之, 五香湯寫之, 次與蒺藜散傅之, 方在單方中.”이라는 癰疽에서의 氣痛을 治療하는 順序에 대한 部分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文章은 “凡癰疽石癰結筋癰瘰, 皆不可就針角, 針角者, 少有不及禍也. 凡癰, 無問大小亦覺即取膠如手掌大, 煖水浸, 令軟納納然, 稱大小當頭上開一孔如錢孔大, 帖腫上令相當, 須臾乾急, 若未有膿者, 即定不長, 已作膿者, 當自出, 若以鋒針當孔上刺至膿, 大好, 至差乃洗去膠. …… 中間將白薇散佳, 又有氣腫痛, 其狀如癰腫, 無頭虛腫色不變, 但皮急痛不得手近亦須服此五香湯, 次白針寫之, 次與蒺藜散傅之. …… 經云, …… 由人體有熱, 被寒冷搏之而脈凝結不行, 熱氣擁結成癰疽, 方有灸法, 亦有溫治法, 以其中冷未成熟之時, 其用冷藥帖薄之, 治熱已成, 以消熱令不成膿也, 赤色腫有尖頭者, 藜蘆膏傅之, 一云醋和蚌蛤灰塗, 乾則易之. 余平生數病癰疽, 得效者, 皆即記之, 考其病源, 多是藥氣所作, 或有上世服石, 遂令子孫多有此疾, 食中尤不宜食麵及酒蒜, 又慎溫床厚被, 能慎之者, 可得終身無它, 此皆躬自驗之, 故特論之也.”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部分은 癰疽 癰石癰 結筋 癰瘰에 針角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針角의 方法에 대하여서는 考證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針角의 方法이 唐代에는 모르거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宋代에 와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겠다. 아울러 마지막에 自身이 癰疽를 治療한 治驗例를 特別하게 記錄하였고, 癰疽가 藥氣나 服石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로서 孫思邈이 服石의 風潮를 批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癰癧方第二』에서 사용된 處方은 모두 六十七首인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處方이 八十七首이고 禁法이 二首, 灸法이 三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記錄된 處方은 九十一首이다.

處方과 關聯된 部分에서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孫真人千金方』에 있는 八味黃耆散傅之方, 治癰腫惡肉不盡者方과 又方, 五香湯, 漏蘆湯方, 丹參膏方, 治氣痛小竹瀝湯方, 白薇散方, 治氣腫痛蒺藜散方, 內消散, 治凡是癰疽皆宜服此方, 凡患腫皆因宿熱所致須服冷藥 差後有患冷利不止者方, 搦腫方, 治癰疽始作 腫赤焮熱甚速方, 治頸項及胸背有大腫赤發 即封令不成膿方, 治癰腫痛煩悶方, 治癰始覺腫令消方과 又方, 治癰方, 治大人小兒癰腫方과 三首의 又方, 治癰子方과 五首의 又方, 治癰有膿令潰方과 二首의 又方, 治癰腫發背初作 及經十日已上 腫赤 熱毒氣盛 日夜疼痛 百藥不效方, 烏麻膏, 治諸腫紫葛帖方, 又帖膏方, 治癰疽痔漏惡瘡 婦人妒乳漆瘡方, 治癰腫松脂膏方, 治膿潰後瘡不合方과 三首의 又方, 治癰癧潰後膿不斷 及諸物刺傷瘡不差方, 禁腫法, 書腫方, 治一切毒腫 疼痛不可忍者方, 取婢麻子搗傅之即差, 治癰有堅如石核者 複大色不變 或作石癰練石散方, 治石癰堅如石不作膿者方, 麻子小豆湯과 四首의 又方 등 五十三首의 處方과 大人小兒癰腫 灸兩足大拇指奇中立差 仍隨病左右的 灸法을 保存하였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변화된 것으로는 連翹五香湯을 五香連翹湯으로, 地黃丸을 乾地黃芩丸으로 處方名을 달리 하였다. 그리고 又治虛勞客熱 數發癰腫瘡癰 經年不差 長服令肥健方을 乾地黃丸으로,

療人身中但患癰疽 皆宜服之方을 內補散이라고 하여 處方名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乾地黄丸, 地黄煎, 枸杞煎, 主風濕體痛 不能飲食 兼癰疽後補虛羸方 등은 그 內容을 약간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部分으로는 黃耆竹葉湯方, 王不留行散, 內塞散方, 豬蹄湯方, 治癰疽發十指 或起膀胱及發背後生惡肉者方, 治癰疽及發背諸惡瘡, 食惡肉膏方, 食惡肉散方과 又方, 治癰疽發背壞後生肉膏方, 生肉膏, 蛇衛生肉膏, 藜蘆膏方, 瞿麥散, 薏苡人散, 黃耆茯苓湯方, 狷皮散方, 梔子湯, 五利湯, 治癰疽發腹背陰匿處 通身有數十癰者方, 若已結膿 使聚長者方, 青龍五生膏, 減癰膏方, 治膿潰後瘡不合方의 又方, 治癰久不差方, 治癰肉中如眼 諸藥所不效者方, 治諸瘡著白痴復發方, 治惡毒腫或著陰卵 或著一邊 疼痛攣急 引入小腹不可忍 一宿殺人方, 治風勞毒腫 疼痛攣急 或牽引小腹及腰髀痛方, 若從腳腫向上至腹者即殺人 治之方, 麻子小豆湯의 又方의 三十一首의 處方과 凡發腫至堅有根者名曰石癰 治之法當上灸之百壯 石子當碎出 如不出 益壯乃佳의 灸法에 관련된 文章이다.

### 3) 「發背方第三」의 比較<sup>7)8)</sup>

『備急千金要方』에서는 「發背第三」이라고 하였으며, 論一首 方十五首가 있다고 하였다.

Table 3. 「發背方第三」의 比較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二首	論	一首
證		證	
處方	五十二首	方	十五首
기타		기타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凡發背 …… 臨困之時, 以闊三寸高一寸, 瘡

有數十孔, 以手按之, 諸孔皆膿出, 尋時失音. 夫人見有此候(所以養生者小覺), 背上痒痛有異, 即火急取淨土, 水和爲泥, 捻作餅子, 厚二分闊一寸半, 以粗艾大作炷灸泥上, 帖(著瘡)上灸(之), 一炷一易餅子. …… 此病忌麪酒五辛等, 亦有當兩肩上發者.”로 『孫真人千金方』에서는 ‘사람에 이러한 證候가 나타나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養生을 잘 한 사람은 등이 가렵거나 아파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을 조금 안다’고 바꾸었다. 그리고 마지막 部分의 禁忌 飲食物을 追加하였다.

그리고 “論曰 治癰發背方 凡腫起背甲中, 頭白如黍粟, 四邊連腫赤黑, 令人悶亂, 即名發背也. 即禁房室酒肉蒜麪, 若不灸治, 即入內殺人, 若灸, 當瘡上七八百壯. 有人不識, 多作癰(癰)腫治者, 即死也.”에서처럼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論을 두 번 言及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이를 합하여 한 번에 언급하였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治癰發背方이라는 제목을 삭제 하였다. 위 문장에서 마지막에 癰腫을 雜腫으로 바꾸었는데 『孫真人千金方』의 文章처럼 癰腫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겠다.

處方に 있어서는 다른 편과 달리 『孫真人千金方』에 실려 있는 五十二首의 處方에서 十五首만 保存하고 나머지는 다른 篇으로 移動하거나 削除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治癰疽發背已潰 排膿生肉方을 內補散으로 治癰疽發背及小小癰癰方을 李根皮散方이라고 處方名을 追加한 處方이 二首가 있고, 大排膿散方을 內塞排膿散으로 이름을 바꾼 處方이 一首였다.

그리고 排膿內塞散方, 治癰 排膿止痛 利小便方, 治癰腫 令自潰長肉方, 治癰疽發背 婦人發乳 諸癰癰已潰 未潰不消令潰方, 豬蹄湯方, 食惡肉散方, 又食惡肉膏方과 又方, 治癰疽發十指及發背後生惡肉方, 麝香膏方, 治癰發背後 生肉膏方, 治癰疽發背潰後 令生肉方, 黃耆竹葉湯, 梔子湯의 十四首의 處方을 削除하였다.

특이한 점으로 丹毒과 관련된 治諸色癰腫差後有癰方, 治丹毒搗方, 治丹毒 以單用藥方, 治丹神驗方, 凡五色油丹 皆縛母豬 枕頭臥之 甚良과 又方, 赤流腫

7)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 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60~367.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401~402.

丹毒方과 二首의 又方, 凡小兒丹毒方과 三首의 又方, 治小兒五色丹方 以蒴藶葉搗之와 二首의 又方, 治小兒白丹方, 治小兒火丹赤如朱走皮中 以醋和豉研傅之와 二首의 又方 등 모두 十九首의 處方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丹毒第四」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治惡毒腫 或在陰處 或著一邊 疼痛擊急 引入小腹不可忍 一宿殺人方, 治風毒腫 疼痛擊急 或引小腹及腰脾方, 若從脚腫 向上至腹者死 以後方, 治毒腫無定處 或赤色惡寒 或心腹刺痛煩悶者 此是毒氣深重的 四首의 處方은 削除하였다.

#### 4) 「療丹毒諸方第四」의 比較<sup>9)10)</sup>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丹毒第四」로 題目이 약간 다르며, 論一首 方三十八首라고 하였다.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서는 小兒丹附라고 附錄을 달아 놓았는데 本文에서는 이를 記錄하지 않았다<sup>11)</sup>. 이것은 校正醫書局에서 校訂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失手라고 하겠다.

Table 4. 「療丹毒諸方第四」의 比較

[孫眞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一首	論	一首
證		證	
處方	二十二首	方	三十八首
기타		기타	

論에서는 內容에 있어서 별다른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몇 글자만 달리 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孫眞人千金方』의 原文을 修正하여 “論曰, 丹毒一名天火, 肉中忽有赤如丹塗之(色), 大者如手掌, 甚者遍身有癢有腫, 無其定色, 有血丹者(或有白丹), 肉中腫起, 癢而複痛, 微虛腫如吹狀 隱軫(起也), 有雞冠丹(者), 赤色而起, 大者如(連)錢, 小者如麻豆粒狀, (肉上粟粟) 如雞冠肌理

9)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67~369.

10)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403~404.

1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4.

也(色 皮澁), 一名茱萸丹, 有水丹(者), 由徧體熱起 遇(如)水濕搏之(結丹), 晃晃黃赤色, 如有水在皮中, 喜著股及陰(處), 此雖小疾(不治)令人至死, 治之皆用 升麻膏也.(宜此治丹毒方)”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괄호친 부분은 『備急千金要方』에서 추가된 것이고, 바뀐 부분은 기울여 記錄하였다.

處方의 記錄에 있어서는 『孫眞人千金方』에서는 二十二首의 處方을 言及하였고,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三十八首의 處方을 말하였다. 그 중 『孫眞人千金方·發背方第三』에서 十九首의 丹毒의 處方을 記錄하였고, 『孫眞人千金方』에서 十八首의 處方을 收錄하였고, 治丹毒單用藥方의 又方으로 “凡天下極冷無過藻菜最冷, 但有患熱毒腫並丹等, 取渠中藻菜, 細切熟搗傅丹上, 厚三分, 乾易之.”만을 새롭게 追加하였다.

『孫眞人千金方』에서 削除한 處方으로는 “凡天下極冷, 無過藻菜最冷. 但有患熱毒腫並丹等, 取渠中藻菜, 細切熟搗, 傅丹上, 厚三分, 乾易”와 “小兒患癰疹, 身體腫強而舌乾方 蕪菁子末, 酒服方寸匕, 日三服”과 三首의 又方으로 모두 五首의 處方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論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升麻膏方은 『孫眞人千金方』에서는 處方名을 記錄하지 못하였던 것을 追加한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處方에 있어서의 五首를 削除하고 一首를 追加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療癰疹方第五」俗呼爲風屎, 亦名風尸의 比較<sup>12)13)</sup>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隱軫第五」라고 하여 題目이 약간 다르며, 論一首 灸法一首 方二十九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記錄된 處方은 三十一首이다. 『孫眞人千金方』에서는 二十四首의 處方이 실려 있다.

12)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69~372.

13)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404~406.

Table 5. 「療癰疹 方第五」의 比較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一首	論	一首	
證		證	灸法一首	
處方	二十四首	方	二十九首	三十一首
기타		기타		

論에서는 內容에 있어서 별다른 差異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몇 글자만 달리 하였다. 그 內容을 자세히 보면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孫真人千金方』의 原文을 修正하여 “論曰, 素問云, 風邪客於肌中則肌虛, 真氣發(遂)散, (又)被寒搏於皮膚 外發湊理(開毫毛), 淫氣(妄)行之則爲癢也, 所以有風軫搔癢(癢軫搔之), 皆由於此, 又有赤軫(者), 忽起如蚊蚋啄, 煩癢(劇者, 重沓蠶起,) 搔之遂手起, 又有白軫(者)亦如此, 赤軫熱時即發, 冷即止. 白軫天陰冷即發, 白軫宜煮礬石汁拭之, 或煮蒴藿和少酒以浴之良姚氏治赤軫 或煮石南汁拭之良, 或水煮雞屎汁, 或煮枳實汁拭之良, 餘一切如治丹方法, (俗呼爲風屎, 亦名風尸.)”라고 하여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지만 內容에서는 같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마지막의 “俗呼爲風屎, 亦名風尸.”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題目의 附錄으로 記錄된 部分이다.

處方の 記錄에 있어서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孫真人千金方』에 記錄되어 있는 處方を 모두 記錄하였다.

그 중에서 處方の 이름이 없던 것을 새롭게 이름을 追加한 것으로는 六十四種風으로 淫液走人皮中如蟲行하여 隱軫搔之作癢하는 것을 治療하는 石南湯과 風癢腫瘡癢在頭面을 治療하는 大黃者洗方과 風熱赤軫을 攄어서 逐手作瘡을 治療하는 青羊脂膏가 있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處方으로는 治風癢隱軫方의 又方인 白朮末酒服方寸匕와 蒴藿防風 羊桃 石南 茵芋 芫花 蒺藜 礬石으로 構成된 又方, 治隱軫百療不差者方의 又方인 芒消八兩水一斗, 治風癢隱軫, 心迷悶亂方의 又方인 吳茱萸一升酒五升, 治小兒患隱軫入腹體腫強而舌乾方의 三首의 又方으로 모두 七首의 處方이다.

處方の 記錄에서 특이한 점은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治風癢隱軫方을 두 차례에 나누어 記錄한 점과, 治風癢隱軫 心迷悶亂方과 治風搔隱軫 心迷悶亂方을 나누어 記錄한 점이다. 이러한 境遇는 校正醫書局에서의 校訂作業時的 失手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6) 「療疽方第六」의 比較<sup>14)15)</sup>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隱軫第五」라고 하였고, 附錄으로 惡肉 赤脈 惡核 癰病 附骨疽 賊風 風熱毒 洪爛瘡 肥瘡 浸淫瘡 癩瘡 疥瘡 骨疽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代指 指疽 逆臚 瘰 尸腳 割甲侵肉이 있다고 하여 題目이 약간 다르며, 論一首 證十五條 方九十四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記錄된 處方은 九十九首이다. 『孫真人千金方』에서는 三十四首의 處方이 실려 있다.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실려 있는 附錄에서 指瘡와 尸腳에 대한 論이나 處方은 찾아 볼 수 없었고,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逆臚 瘰 割甲侵肉에 대하여는 處方에서만 언급되었다.

Table 6. 「療疽方第六」의 比較

[孫真人千金方]		[備急千金要方]		
論	二首	論	一首	
證	經曰一條	證	十五條	
處方	三十四首	方	九十四首	九十九首
기타		기타		

論에 該當하는 部分에서는 많은 部分의 內容은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다만 『備急千金要方』에서의 記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으며, 몇가지를 追加하였다.

『孫真人千金方』의 “經云 氣宿於經絡中, 血氣俱澀 不得行, 擁結爲癰爲癩疽也. 不云熱之所作, 其成癰, 久寒化爲熱, 熱盛即肉腐爛爲膿也. 由人體有熱, 被寒

14)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真人千金方(附 真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72~377.

15)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p.406~412.

冷搏之，而脈凝結不行，熱氣擁結成癰疽。方有灸法，亦有溫治法，以其中冷未成熟之時。其用冷藥帖傅之，治熱已成以消熱，令不成膿也。”를 削除하였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追加한 文章은 “代指者，先腫脰熱痛，色不黯綠 爪甲邊結膿，劇者爪皆脫落，此謂之代指病也，但得一物，令藥汁搗漬之佳，若熱盛 脈漏蘆湯及搗漬之，傅升麻膏亦可，針去血不妨 洗漬塗膏也。…… 凡熱瘡起便生白膿黃爛，瘡起即淺，但出黃汁名肥瘡。浸淫瘡者，淺搔之曼延長不止，搔癢者，初如疥，搔之轉生汁相連著是也。癩瘡者，初作亦如肥瘡，喜著手足，常相對生，隨月生死，痛癢坼裂，春夏秋冬隨差劇者是也。有人癰餘瘡，敗爲深疽者，在脰脛間喜生瘡中水惡露寒凍不差，經年成骨疽，亦名胎瘡，深爛青黑，四邊堅強，中央膿血汁出，百藥不差，汁潰好肉處皆虛腫，亦有碎骨出者，可溫赤龍皮湯漬方見下卷癰癩篇 夏月日日洗，冬天四日一洗，青肉多可傅白蘭茹散，食却惡肉，可三日傅之止，候長傅家豬屎散得差止，取豬屎燒灰末如粉，致瘡中令滿，白汁出吮去，隨更傅之差止，若更青肉，複著白蘭茹散，如前法家豬散取不復，凡骨疽百療不差者，可瘡上以次灸之，三日三夜便差，如瘡不差，差而復發，骨從孔中出者，名爲骨疽，取先死烏雌雞一隻，去肉取骨，熬焦如炭，取三家牛 梛木刮取屑，三家龜鱗各一兩，皆燒成炭，合導瘡中碎骨，當出數片 差。”이다.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文章이 다른 部分의 예를 들면 “論曰，癩疽者，肉中忽生點子如豆粒，小者如(黍)粟，劇者如梅李，或赤或黑或青或白，其狀(不定)，有根不浮(腫)，痛傷之應心，根深至肌，經久便四面悉腫飽，黯(熱紫黑)色，能爛壞(筋)骨，若毒散，逐脈入藏殺人。南人名書(爲楊著毒 厚肉處)即割(去)之 亦燒鐵烙之，<或>令焦如炭，或灸百壯，或飲葵根汁，或飲藍青汁，或飲(若)犀角汁，及升麻汁竹瀝黃龍湯等(諸單方治)，專去其熱耳(取差)，其病(喜)著乎(十)指，故與代指相似，人不識之，呼作代指，不急治之，亦逐脈入藏殺人。南方人得之，皆斬去其指，初指頭先作黯(瘡)，後(始)腫赤黑黯，(瘡)痛入心是也。”이다. 여기에 나타나듯이 『備急千金要方』에서 除外한 <或>이나, 새롭게 추가한 (黍) (不定) (腫) 등 새롭게 追加한 글자들은 內容을 파악하는데 별 다른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著(爲楊著毒 厚肉處) 或飲(若) 등처럼 그 글자를 바꾼 部分도 內容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孫真人千金方』에는 論의 內容이 앞부분에서 끝부분까지 골고루 섞여서 記錄되었던 것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앞부분으로 모아서 記錄한 점이 다른 점이다.

處方に 있어서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疽가 五指에 나타나는 경우에 踝骨中央에 數壯 혹은 百壯의 膿을 吮는 方法과, 亂髮灰를 服用하는 方法을 記錄하였다. 이어서 疽潰後, 疽似癰而小有異, 骨疽百方治不差者(骨疽라고 불림), 癩疽秘方, 癩疽諸疽, 癩疽浸淫多日漸大方, 癩疽著手足肩背 差後復發方, 癩疽著手足肩背 忽發黑累累如赤豆 剝之汁出者治方, 癩風疽方, 主石疽方, 主骨疽方, 主久疽方 등이 있고 마지막에는 辨附骨法의 뒤에 藜蘆膏方을 記錄하여 모두 三十四首의 處方을 실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凡骨疽百方治不差와 藜蘆膏方의 二首를 削除하였다. 그리고 『孫真人千金方』의 治療疽秘方에서 治療疽著手足肩背 忽發累累如赤豆 剝之汁出者方까지와, 疽가 五指에 나타나는 경우에 亂髮灰를 服用하는 方法부터 疽似癰而小有異까지와, 癩風疽方의 治脚脰及曲脈中癢에서 主久疽方까지의 三十二首를 配列順序를 바꾸어 引用하였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處方은 凡疽卒著五指 筋急不得屈伸者, 治浸淫瘡 苦瓠散方과 又方, 瘡表裏相當 名浸淫瘡方과 又方, 治癩瘡方과 四首의 又方, 治燥癩方과 又方, 治濕癩方, 治癩疥百療不差方, 治久癩疥濕瘡 浸淫日廣 癢不可堪 搔之黃汁出 差後復發方, 一切癩瘡, 治久癩瘡敗壞成骨疽方, 蟲出如發 盡愈 膏方, 治附骨疽方과 又方, 附骨疽 灸間使後一寸, 治諸瘡因風致腫方과 又方, 治惡露瘡方, 治反花瘡並治積年諸瘡方과 二首의 又方, 治惡瘡方과 三首의 又方, 治惡瘡似火爛洗湯方, 治惡瘡名日馬疥 其大如錢方, 治身瘡及頭瘡不止方, 治瘡久不差方, 治惡瘡十年不差似癩者方과 五首의 又方, 治諸瘡久不差 並治六畜方, 烏膏 主惡瘡方, 烏膏 治種種諸瘡不愈者

方, 治代指方과 八首의 又方, 治指痛欲脫方, 治手足指掣痛不可忍方과 又方, 治手足指逆腫方과 一首의 又方, 治凍指瘡欲墮方, 治手足皴裂 逆腫代指方, 治手足皴裂破裂 血出疼痛方, 治冬月冒涉凍凌 面目手足皴瘡 及始熱痛欲瘡者方, 治手足皴痛方과 一首의 又方, 治人脚無冬夏常拆裂 名曰屍脚方과 一首의 又方, 割甲侵肉不差方과 一首의 又方으로 모두 六十八首의 處方이다.

### 3. 考察 및 結論

위와 같이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丁腫癰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備急千金要方』 卷二十二 「丁腫癰疽」는 『孫真人千金方』에서는 二十三卷에 位置하고 있다. 『孫真人千金方』에서 卷二十二는 「食治方」으로 『備急千金要方』의 卷二十六에 해당한다. 이는 『孫真人千金方』을 校訂하면서 「食治方」을 뒤로 옮겨서 「雜病」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記錄한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筆者가 이미 發表한 바와 같이 “이로 보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全體의인 配列에 있어서 五臟六腑에 대한 說明이 있는 후에 雜病 癰毒 痔漏 解毒雜治 備急의 順序로 疾病을 언급하였고 그 뒤에 藥物에 대한 食治方과 養生과 診斷에 필요한 脈을 記錄하였고 마지막으로 鍼灸治療에 대한 說明을 하여 醫學을 工夫하기 便利하게 編次를 바꾸었다고 하겠다.”<sup>16)</sup>라는 것과 같이 醫學工夫를 편리하게 하거나 위급할 때 찾아보기 便利하게 하기 위해서 그 順序를 바꾼 것이라고 하겠다.

『備急千金要方』卷二十二·丁腫癰疽의 세부 目次는 丁腫 癰疽 發背 丹毒 癰疹 瘰癧로 『孫真人千金方』과 거의 유사하게 構成되었다. 다만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全體 目次에서 言及되었던 附錄을 넣어 더욱 具體적으로 밝혀 놓았다.

癰疽篇의 각각에 대한 比較는 아래와 같다.

『備急千金要方·癰疽方第二』의 論에서 새롭게 追加한 것 중에서 癰疽 瘤石癰 結筋 瘰癧에 針角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과 끝부분에 自身이 癰疽를 治療한 治驗例를 特別하게 記錄하였고, 癰疽가 藥氣나 服石에 의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로써 孫思邈이 服石의 風潮를 批判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乾地黃丸, 地黃煎, 枸杞煎, 主風濕體痛 不能飲食 兼癰疽後補虛羸方 등은 그 處方의 內容을 다르게 기록하였고; 連翹五香湯을 五香連翹湯으로, 地黃丸을 乾地黃芩丸으로 處方名을 다르게 기록한 것이 있고; 乾地黃丸 內補散 등은 內容만 있고 處方名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새롭게 추가된 部分으로는 六十一首의 處方과 凡發腫至堅有根者名曰石癰 治之法當上灸之百壯 石子當碎出 如不出 益壯乃佳의 灸法에 관련된 文章이다.

이로 보아 「癰疽方第二」는 論과 處方に 있어서 많은 差異가 있어 다른 方書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發背方第三」에 대하여 『孫真人千金方』에서는 論을 두 번 言及하였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이를 합하여 한 번에 언급하였다. 處方に 있어서는 다른 편과 달리 『孫真人千金方』에 실려 있는 五十二首의 處方에서 十五首만 保存하고 나머지는 다른 篇으로 移動하거나 削除하였다. 그리고 『備急千金要方』에서 內補散과 李根皮散方은 處方名을 追加한 것이고; 大排膿散方은 內塞排膿散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排膿內塞散方 등 十八首의 處方을 削除하였다.

특이한 점으로 丹毒과 관련된 治諸色癰腫差後有癰方 등 모두 十九首의 處方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丹毒第四」로 옮겨 놓았다.

「療丹毒諸方第四」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丹毒第四」로 하여 題目이 약간 다르다.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서는 小兒丹附라고 附錄을 달아 놓았는데 本文에서는 이를 記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校正醫書局에서 校訂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失手라고 하겠다.

處方の 記錄에 있어서는 『孫真人千金方』發背方第

16) 金容辰, 『孫真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대한 比較 研究. 大漢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3). p.13.

三』의 十九首의 丹毒의 處方을 記錄하였고, 『孫眞人千金方』에서 十八首의 處方을 收錄하였고, 治丹毒單用藥方의 又方으로 “凡天下極冷無過藻菜最冷, 但有患熱毒腫並丹等, 取渠中藻菜. 細切熟搗傅丹上, 厚三分, 乾易之.”만을 새롭게 追加하였다.

『孫眞人千金方』에서 削除한 處方으로는 “凡天下極冷, 無過藻菜最冷. 但有患熱毒腫並丹等, 取渠中藻菜, 細切熟搗, 傅丹上, 厚三分, 乾易”와 “小兒患癰疹, 身體腫強而舌乾方 蕪菁子末, 酒服方寸匕, 日三服”과 三首의 又方으로 모두 五首의 處方이다.

이로 보아 處方에 있어서의 五首를 削除하고 一首를 追加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療癰疹方第五」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隱軫第五」라고 하여 題目이 약간 다르며, 論一首 灸法一首 方二十九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記錄된 處方은 三十一首이다.

『備急千金要方』에서 處方의 記錄에 있어서는 處方의 이름이 없던 것을 새롭게 이름을 追加한 것으로는 石南湯과 大黃者洗方과 青羊脂膏이고, 새롭게 추가된 處方으로는 治風癢隱軫方의 又方인 白朮末酒服方寸匕 등 모두 七首의 處方이다.

處方의 記錄에서 특이한 점은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治風癢隱軫方을 두 차례에 나누어 記錄한 점과, 治風癢隱軫 心迷悶亂方과 治風搔隱軫 心迷悶亂方을 나누어 記錄한 점이다. 이러한 境遇는 校正醫書局에서의 校訂作業時의 失手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療疽方第六」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隱軫第五」라고 하였고, 附錄으로 惡肉 赤脈 惡核 癰病 附骨疽 賊風 風熱毒 洪爛瘡 肥瘡 浸淫瘡 癩瘡 疔瘡 骨疽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代指 指疽 逆臚 瘰 尸腳 割甲侵肉이 있다고 하여 題目이 약간 다르며, 論一首 證十五條 方九十四首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記錄된 處方은 九十九首이다.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실려 있는 附錄에서 指瘡와 尸腳에 대한 論이나 處方은 찾아 볼 수 없었

고, 風疽 石疽 瘡因風致腫 惡露瘡 反花瘡 逆臚 瘰 割甲侵肉에 대하여는 處方에서만 언급되었다.

處方에 있어서는 『孫眞人千金方』에서는 疽가 五指에 나타나는 경우에 踝骨中央에 數壯 혹은 百壯의 膿을 뜨는 方法으로부터 辨附骨法의 뒤에 藜蘆膏方까지 모두 三十四首의 處方을 실었다.

이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凡骨疽百方治不差와 藜蘆膏方의 二首를 削除하였고, 凡疽卒著五指 筋急不得屈伸者 등 모두 六十八首의 處方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癰疽篇에 있어서 特異한 事項으로는 『孫眞人千金方·癰疽方』의 漏蘆湯方이 漏蘆 白薇 黃芩 麻黃 白微 枳殼 升麻 芍藥 甘草 大黃各三兩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을 『備急千金要方·癰疽』의 漏蘆湯方은 漏蘆 白及 黃芩 麻黃 白微 枳實 升麻 芍藥 甘草各二兩 大黃二兩으로 構成되어 있다. 『孫眞人千金方』의 白薇과 枳殼을 白及과 枳實로 바꾼 것이다. 白及에 대하여서는 후세 사람들이 『外臺秘要』에 白薇이라고 되었는 것을 考證하기도 하였다.

『孫眞人千金方』의 枳殼을 『備急千金要方』에서는 “枳實枳殼後世曲生異端,”<sup>17)</sup>라고 하여 모두 枳實로 使用하였다. 기타 藥物의 名稱을 바꾼 것으로는 夜干을 射干으로, 藜草를 莽草로, 秦膠를 秦朮로 고친 것이 있다.

이상을 綜合하여 보면 『孫眞人千金方』은 唐代의 處方을 모아놓은 書籍이라고 할 수 있는데, 『備急千金要方』에서 이를 校訂하면서 宋代의 醫學知識으로 校訂하여 원래의 處方을 削除하거나 새로운 處方을 追加하는 등의 作業內容이 많이 反映되어 있다. 그러므로 『備急千金要方』에서는 唐代 孫思邈의 原著의 모습을 많이 喪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孫眞人千金方』을 통한 唐代 臨床醫學에 대한 研究를 試圖하여야 한다고 思料된다.

17)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影印. 1955. p.5.

## 參考文獻

### <논문>

1. 金容辰. 『孫眞人千金方』과 『備急千金要方』의 目次에 對한 比較 研究. 大漢韓醫學原典學會 誌. 2011. 24(3). p.13.

### <단행본>

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影印. 1955. p.4, 5. pp.389~392, 392~401, 401~402, 403~404, 404~406, 406~412.
2. 孫思邈原著, 李景榮, 蘇禮, 焦振廉 校訂. 孫眞人千金方(附 眞本千金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45~349, 350~360, 360~367, 367~369, 369~372, 372~377.
3. 李經緯, 林昭庚. 中國醫學通史(古代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248.
4. 전국한의과대학원진학교실편찬위원회. 改訂版 類編黃帝內經. 大田. 周珉出版社. 2006. p.561.

